

## ■ 전남도립미술관서 전시 열고 있는 김선두 화가

## “강한 생명력…평범하고 특이하게 그려보자 생각”



### 판소리·남도 가락 찾아 들으며 작업 미술 외 문학과 영화 등 교류 ‘활발’ “현대회화는 깨달음… 전통에 충실”

“땅이 가지고 있는 큰 생명력과 남도 가락을 드러내는 그림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판소리나 남도 가락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찾아서 들으면서 작업할 때도 막 틀어 놓고 작업을 했죠. 또 긴 산들이 느리면서도 유장한 느낌, 그려면서 우리 목은 김치나 젓갈도 맛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색깔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황토를 표현했는데 한 450번 발랐던 것 같아요. 이걸로 평가를 받아서 석남미술상을 받았습니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시도 했어요.”

전남 장흥 출생 김선두 작가(중앙대 명예교수·한국화)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남도의 자연 풍경에서 출발한 ‘남도 시리즈’를 포함한 ‘느린 풍경’ 등 70여점을 전남도립미술관에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개막, 오는 3월 22일까지 1~4전시실에서 ‘색의 결, 화의 숨’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아티스트

토크를 앞두고 김 작가를 전시장에서 만나 전시내용과 작품세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위 멘트는 남도적 화풍이나 색감, 선 등에 대한 설명 대목이다.

김 작가는 31년 정도 중앙대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명예교수지만 현재는 강의를 나가고 있지는 않고 작업만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회화 작품 중 문학과 영화 관련 작업이나 깊은 인연을 들려줬다. 그는 소설가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 온 가운데 이청준 소설가나 정재봉 동화작가, 김영남 시인, 이승우 소설가, 그리고 존재 위백규까지 언급하며 회고했다. 다만 그는 남도로 스케치를 와서 느끼는 단상을 잊지 않았다.

“남도에 스케치를 와 보면 풍경이 다 다르고 산도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설악산이나 강원도에 가면 산이 다 막고 있습니니다. 만약 설악산이 있다면 앞에 산들이 모두 막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하지만 우리 호남의 산들은 뿌리부터 보이잖아요. 남도의 산들은 높아 봐야 해발이 700~900m죠. 천관산도 그렇고, 월출산도 보면 마치 금강전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밑에서부터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설악산을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서는 영암으로 가는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월출산이 썩 다 보이

잖아요.”

이처럼 자연 산수의 차이를 설명한 그는 유년 시절 부친이 좋은 전시들을 소개해줘 작품들을 본 기억을 호호하면서 거거서 맺은 인연이나 교류를 잊지 않고 언급했다.

소설가 한승원 선생이 전라도 사람들 기질을 샅터엔가 썼었는데 그것을 전라도 사람들에 빗대 썼다. 산들을 닮아서 굉장히 힘도 세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수가 틀리면 없어버리는 것을 예로 들며 그것을 전라도 사람의 성향의 하나로 소개했다. 또 순천 출생 정재봉 선생과 30여년 동안 교류를 했다. 당시 샅터주간을 맡고 있을 무렵 “이청준 선생의 삽화를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청준 선생과도 인연이 닿았다고 했다. 여기서 같은 동향의 김영남 시인은 중앙대 교직원으로 재직해 그와도 교류를 해왔다고 했다. 김 작가는 문학분야 거목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연유를 빠뜨리지 않았다.

또 전시장에서는 그가 영화 분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대목을 목도할 수 있었다.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 대역을 맡아 열연했기 때문이다. 극중에서 그렸던 그림이 ‘노안도’였다. 현재 전시에 선보이고 있는 ‘노안도’만 보더라도 그가 이웃 장르와 얼마만큼 폭넓게 교류하며

작업활동을 펼쳤는가를 직감할 수 있다. 그는 남도에 중학생 무렵까지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의 회화정신의 모태는 남도와 남도산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교사 출신 아버지는 남종화의 거목 중 한 사람인 소천 김친두 선생으로, 예술적 끼를 물려받은데다 남농 허균과 율전 장우성을 사사했다. 이뿐 아니라 김 작가 외에 아우 선일, 서울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손자 김종일까지 이어지는 대표 화맥 집안을 이루고 있는데 그의 회화의 면면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상징이었다.

“제가 재수할 때 아버님이 동산방에서 아주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으니 가봐라 해서 봤는데 일랑 이종상 선생님의 첫 개인전이었어요. 진경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 전시를 보면서 아버지 화집이나 이 전시를 통해 옛날 동영상도 많이 봤죠. 그리고 저한테 그 두 분 큰 스승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미술 전공은 아니지만은 장흥 출신의 위대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 하고 인연을 맺었었죠.”

그러나 이청준 선생하고 같은 고향이지만 자신과 만난 고향 장흥과는 결이 달랐음을 술회했다. 자신은 조금 개구지고 천성이 놀기를 좋아해 어디 붙어 있지를 못했다는 전언이다. 그리고 막 남의 일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기억 속 고향은 약간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서울에 가서는 적

응을 못해 고생을 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해방정국과 6·25 등 힘든 시절을 많이 겪은 이청준 선생과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이 많이 다르게 된 이유로 풀이했다.

특히 풍경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좋았다는 그는 풍경에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고, 그렇게 해서 ‘느린 풍경’에 천착하게 됐는데 대학 때는 산수, 대학원 때는 인물에 집중했다. 데뷔 무렵에는 너무 스승님들과 그림이 닮아 있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맛골 포장마차들 그려 중앙미전을 통해 데뷔하고 그 무렵 서커스가 들어와 서커스 시리즈를 하게 됐죠. 제 그림에 쪽 흐르고 있는 것은 어떤 강한 생명력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되죠. 금강산이나 설악산, 월출산 같은 화려한 산수는 아니지만 어떤 화가도 그리지 않은 평범한 땅을 저는 좀 비범하게 그려보자 마음 먹었죠. 그러니까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렸는데 그것이 참 신선했습니다. 저는 좀 평범하고 특이하게 그려보자 생각했어요. 인물도 그렇구요.”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회화는 정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면서 자신만큼 전통에 충실한 작가도 없을 것이라고 들려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집중

### 김령 제2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 펴내 “문득 낯선 우리 삶에 대해 주목”…55편 수록

고흥 출생 김령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지난 168번째 권으로 펴냈다. “아이의 표정도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이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시 표정은 결코 알 수 없는 표정들에 대한 고상이 역력하게 포착된다. 그의 시편들은 명쾌한 해석보다는 무언가 무릎을 치며 깨닫기를 강구한다. 한결 같이 시편들이 정연하게 흘러가지만 결론부에서 울림을 강하게 가져간다. 도입부에서는 그다지 시가 맛 있거나 심오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론부에 도달하면 시인이 이런 울림을 주기 위해 흐름 혹은 시상 전개 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든다.

표제에서 성냥과 상냥은 시 ‘성냥을 사야 할까’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비슷한 발음의 중첩을 통해 언어유희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중첩의 의미에 기대 시상을 전개해 가지는 않는다. 성냥의 소유로부터 불길, 불길 전후 존재에 대한 탐구 등 성냥으로 촉발된 사유를 차분히 정리한다.

이처럼 시인의 시들은 서정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와는 결을 달리한다. 시의 전체적 무게 중심을 결론부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떡 보살’과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 같은 시편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시인은 ‘호떡 보살’을 통해 ‘산신보살 선녀보살 천수보살 천녀보살 장군보살 아라보살 약사보살 애기보살 애동보살 계룡보살 청룡보살/사이, 붉은 리본 내건 호떡보살/저 등등한 신들 틈 사이는 어쩌다 호떡 보살을 모시게 되었을까 찌르

른한 신들 사이 호떡 신을 모시고 어찌저저 결가/놀이 못하는 애와 짝이 되면 미리기가 죽었는데 고스톱에서조차 나쁜 패를 받아 들면 심장이 조이는데/자신의 입만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호떡보살을 모신 자이는 뭐라고 하냐/산신은 근엄하게 호통치면서 천녀보살은 천상의 음성으로 애기보살 애동보살은 애교를 부리며 일러 줄 텐데 호떡보살은 뭐라고 점괘를 알려 줄까/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 더듬더듬 호떡보살을 찾는 동굴 같은 눈빛 앞에서’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하늘은 신계인 듯하다. 신계 역시 곡선의 삶은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에서 기발한 또는 맛있는 점괘를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산신보살이나 선녀보살 같은 흔한 보살이 아닌, 호떡 보살은 오늘날 부조리한 시대, 점괘로 내려보내기 어려운 운명들만 에 예측하는 것으로 진지하기보다는 잠시 가벼운 마음에 가닿게 한다. 어쩌면 시적 자아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친근한 보살로 그 해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무언가 의미를 반증해놓고 반듯하게 절단하는 것이 아닌,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형체를 통해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또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은 비유나 설명이 늘어져 시적 긴장감을 상실하는 시편들도 난무하

는 세태 속 압축과 압축을 거듭해 강렬하고 내밀한 시적 긴장과 울림을 확보한다. 짧지만 시적 의미감이 나이트처럼 깊이를 더하며 파고드는 형국이다. 시인은 ‘사향취는 땀에 걸리면/다리를 물어뜯어 잘라 낸다/오른쪽 발목이 가렵다’고 읊는다.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그 울림의 깊이는 결론부에서 최고 지점을 찍는 듯하다.

이외에 ‘잊나무가 있는 집’ 역시 마찬가지다. ‘하 나쁜인 아들 앞세우고/면 산을 보며 밥을 먹는다/잊나무에 앉아 건너다보는/까마귀 똥을 남긴다’고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적 자아는 죽은 아들이 있는 면 산을 응시하며, 살아있음을 위해 식사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까마귀는 자신이 있는 곳을 살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 시적 자아가 있는 곳을 자아가 부재하기에 죽음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다시 시적 자아는 자신과 까마귀를 동일선상에 놓아두고 ‘면 산’과 ‘잊나무’라고 하는 든든한 동일 지점을 확보한다.

시인의 시편들은 쉽게 절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론부에 가서 시적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시 ‘숲속에 누군가 있었네’와 ‘산다’, ‘거기’ 등 55편이 실려 있다.

남승원 문학평론가는 해설 ‘가볍게 건네는 안부’를 통해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삶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그래서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껍 껌인 모습 그대로의 고통 맞아야”라면서 “문득 낯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시인은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광주연극협회 신임 회장에 임홍석 선출

### ‘2028 대한민국 연극제 광주 유치’ 내걸어…10대 핵심 공약 발표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광주연극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지회장으로 임홍석 광주 소극장협회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임홍석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가운데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준비하는 지역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 연극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취임하며 내건 첫 번째 공약으로 ‘2028 대한민국 연극제 광주 유치’를 꼽았다.

그는 “광주 시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예산을 확보, 대한민국 연극제를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는 더 많은 무대 기회와 제작비 지원을 드리고, 광주를 다시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튼튼하게 하겠다는 ‘재정 기반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협회 안에는 사업 기획팀을 새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모든 과정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대 간의 따뜻한 연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오랫동안 지역 무대를 지켜온 선배님들의 경험은 광주 연극의 보물”이라며 “선배님들이 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예우하고,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화가 끊이지 않는 협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제 막 결실을 맺는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청년 워크숍과 공동 작품



제15대 광주연극협회 신임 임홍석 지회장(왼쪽)과 제14대 광주연극협회 고난영 전임 지회장.

제작 및 해외 교류 기회를 대폭 늘려 젊은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연극인을 잇는 매칭 프로그램, 연극인 생활·창작 지원 제도, 연극 홍보 전용 플랫폼 구축, 지역 학교 및 기관과의 연계 강화, 광주 연극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기록소) 구축 등 10대 핵심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역 연극계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늘 회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발로 뛰며, 시민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광주 연극의 전성기를 다시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강용복 부회장이 함께 선출, 향후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 임원진들과 광주연극협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